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 퇴직연금 업무 일부 불합리한 행태 발견

□ 금감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함.

○ 총 5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9개 회사(은행 3개, 보험회사 3개, 증권회사 3개)에 대한 현장점검과 44개 회사에 대한 자율점검으로 검사를 실시함.

□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처리 방법은 개선되었으나 연금계리 및 영업 등 일부 부문에서 불합리한 업무행태가 발견됨.

○ 적립금 운용방법의 구성, 정보제공 등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, 가입자의 운용지시권 보호도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.

○ 연금계리는 등록된 전문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연금계리시스템도 적정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재직자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가입단체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은 과거 자료로 재정건전성 검증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나타남.

○ 기록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이 전산설비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, 전산설비 유지·보수를 위한 시스템도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.

○ 적립금의 보관·관리 및 퇴직급여 지급업무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도인출시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증빙관리가 미흡한 몇몇 사례가 발견됨.

○ 가입자교육을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집합·온라인교육의 비중은 낮고 서면교육의 비중(평균 86%)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○ 제도도입 및 계약체결 절차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형 개인퇴직계좌(IRA)* 제도도입 관련 요건 미충족 도입사례가 발견됨.

* 기업형 개인퇴직계좌(IRA)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단체를 위해 간소화된 특례제도임.

□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자에게 유의사항으로 통보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임.

○ 사업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표준화 TFT를 구성하여 운용관리시스템 표준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.

○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도위주의 업무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시장의 불건전영업이 우려되는 경우 부문검사 실시도 고려하고 있음.

(퇴직연금제도 안정화를 위한 업무실태점검 결과, 금감원, 10/27)